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개선방안 제언

기후위기워킹그룹(이원재, 정유란, 성지수, 윤민지, 나혜영)

1. 제안 배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는 주요 활동 의제로 ‘예술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개발’로 설정하고 ①예술의 현재성, ②기후위기와 예술, ③예술과 기술을 주제로 하는 워킹그룹을 운영
- ‘기후위기와 예술’ 워킹그룹은 예술정책 환경변화에서 가장 위협적 과제이자 전환의 계기로 제시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이슈에서 문화와 예술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탄소중립과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국가비전과 정책을 제시 -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2050 탄소중립 요구(2018)에 따라, 정부는 2020년 UN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하고(2020.12).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2021.8)을 제정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을 위한 이행체계를 법제화
-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을 발표. 그 중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추진
- 정부는 한국형 뉴딜사업, 탄소중립기본법 등을 마련하면서 대전환을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계방안은 부재한 상황임

-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탄소중립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나, 문화예술 부문(문화체육관광부)의 메시지와 정책은 부족한 상황
- 한국판 뉴딜사업에서도 디지털 뉴딜사업에 문화예술분야 데이터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통합적 관점에서 및 개별 뉴딜 사업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의제가 부재함에 따라, 대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정책 과제	주요 내용
① 기후위기 관점에서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수립과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 추진	❶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국가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 ❷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 추진
②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 확대	❶ 재난사회의 차원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화 추진 ❷ 예술 결과물과 사업성과 중심에서 사람(예술인·작업자)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 ❸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안적 시나리오 수립, 지원방식의 탄력성 확대 ❹ 일상적 재난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③ 예술 창작 활동과 단체 운영의 녹색화 지원	❶ 아카이브 구축 및 이용 활성화 ❷ 문화·예술 분야 탄소발자국 지표와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 지원 ❸ 예술현장 녹색화 지원 및 인프라 구축 ❹ 예술현장 녹색화와 지원사업 구조 연계 ❺ 예술현장 녹색화에 대한 공론화 및 예술계 내외의 네트워크와 워크숍 지원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위기 문화적 적응과 이니셔티브 형성	❶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기회 및 역량 향상 ❷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 현장의 탄소중립 기반 조성 ❸ 예술지원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과 리더십 실천

2. 정책 제안

①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국가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과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Adaptation Through Culture) 추진

❶ 기후위기·생태문화의 관점에서 <국가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

○ 국가비전의 주요 내용 (예시)

- 비전 : 삶-체제의 전환을 향한 성찰과 순환의 문화사회
- 예술 : 안전한 예술 창작 환경 만들기
- 지역문화 : 지속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로서의 지역문화생태계 지원(축적)
- 문화예술교육 : 탈성장과 생태문화의 가치시민을 위한 배움(터) 확산
- 문화산업과 관광 : 탄소중립 제작·유통 체계 구축
- 공공문화기반시설 : 생태문화(탄소중립) 관점에서의 시설운영 체계 구축과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 :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관리 체계 재수립, 생태친화적인 적정기술로서 전통문화 회복과 활성화 지원

○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국가 핵심의제와 문화정책의 적극적인 연계 (예시)

- 생태친화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 : 예술뉴딜 프로젝트
- 지역문화생태계를 통한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 문화·예술 기반 귀촌·귀농 로컬트러스트 프로젝트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돌봄으로 고령사회 대응 :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Aging in Community) 환경 형성

○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평가지표 체계> 수립

- <국가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과 <국가 핵심의제 사업>에 대한 기후위기지속가능성 관점의 평가지표 체계 구축 :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규제조치 등을 통해 실질화
-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 보완 및 활성화 추진

- 문화예술 탄소배출 측정툴 및 장르별·분야별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개발
 - 탄소중립의 원칙에 대한 동의는 있으나, 실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부재한 상황. 장르별·부문별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적이고 실질적 안내서(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탄소측정 툴) 증거기반 탄소중립 현황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 탄소배출계산 툴 및 사용매뉴얼 개발
 -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창·제작의 세부단계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장르별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안내서) 개발·배포

②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Adaptation Through Culture) 추진

-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참여 전략의 한계(사실과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었던 커뮤니케이션 및 일방향적 캠페인)를 문화적 전환을 통해 극복하는 것으로, 기후위기를 사회·문화적 이슈로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문화예술적 접근을 의미
- 창의적 실천의 잠재력을 실험·탐구하고 전환적 방법을 찾아가는 시도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감각하고 나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동시에 환경적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문화적 적응(Cultural Adaptation) 프로젝트
 -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을 넘어선 동반자적 파트너십으로 전환적 지식을 공유하고 전략을 공동 개발하는 단기 및 장기 프로젝트
 -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화를 사회적 이슈로 전달·소통하거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지역 및 사회의 기후관련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

- 문화·예술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Adapting Our Culture)
 - ‘문화예술부문의 기후위기 적응’은 국제적·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Net-Zero)이 문화예술부문에 적용될 것을 준비·실천하는 과정으로, 문화예술 조직운영과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지원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 국가문화예술기관 국제연합체(IFACCA)는 공공부문이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원의 의무와 역할을 제안(2014), 영국예술위원회(ACE)는 문화예술영역의 탄소중립을 위해 기금지원 조건으로 환경성과보고 의무화,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

- (가칭)<Creative Climate Korea> 운영
 - 문화·예술정책에서도 기후위기가 과제이자 전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주제와 방식으로 기후-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통해 관련 정책의 정착 및 성공적 추진 필요
 - 유네스코(UNESCO)에서 진행한 ‘The World in 2030’(2020, 앞으로 다가올 전 세계적 도전을 대비하고자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2030년까지 인류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1위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응답(2위 폭력과 갈등, 3위 차별과 불평등). 유네스코는 결과를 반영하여 ‘22년-’29년 중장기전략 수립에 활용

■ [참고]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참여를 위한 멤버십 사례

1. (스코틀랜드) Green Arts Initiative

- 개요: 녹색 예술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170개 이상의 문화단체로 구성된 커뮤니티 네트워크 Green Arts Initiative를 운영(Creative Carbon Scotland, 무료)
- 이점: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자원과 지원서비스(컨설팅, 우수 사례 공유, 네트워크 기회 등) 제공
- 인증: 별도 선발이 아닌, 네트워크 회원 자격을 강조하기 위한 브랜드 및 마크제공
- 자료: <https://www.creativecarbonscotland.com>



2. (영국) Creative Green certification

- 개요: 기후위기로 전혀 다른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조직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창조적 그린 커뮤니티를 결성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Julie's Bicycle, 유료)
- 기준: Creative Green Framework 기준으로 선발
- 이점: 교육 및 학습 워크숍, 마케팅에 활용, 환경전문가 지원, Creative Green Awards 신청 참가자격 부여
- 자료: <https://juliesbicycle.com/creativegreen-certification/>



②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① 재난사회의 차원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화 추진

- 재난사회의 일상화 속에서 물리적인 대책뿐 사회적 고립, 소외, 배제, 치유 등에 대한 사회적 대책 시급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안전하고 결핍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
 - 재난을 겪은 모두가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지속되는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만 함
- 문화적 차원(감각, 감정, 심리, 소통 등)에서 재난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및 체계 마련 필요
- 문화와 예술,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심리와 치유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정책 수립
- 위기상황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과 사회적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위기단계별 지원, 맞춤형 지원 등

② 예술 결과물과 사업성과 중심에서 사람(예술인·작업자) 중심으로 정책 목표 전환

- 예술 작품보다 예술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예술인 주거, 먹거리, 이동(교통) 등 전반적인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합적 차원의 관심 필요
- 예술 활동 돌봄 지원, 생태 및 돌봄 등 사회적 일자리와 활동 연계
- 지원그룹, 네트워킹, 심리상담,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병행

③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안적 시나리오 수립, 지원방식의 탄력성 확대

- 지원사업 운영방식의 대응력과 탄력성 강화
- 재난과 위기 시에도 공공사업을 실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왜곡된 지원사업 구조 개혁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사례처럼 창작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 지원 사업 확대

④ 일상적 재난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 위기 발생 사후에 경제적 피해·손실에 대한 보전만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재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접근 시급
- 위기관리 및 대응 프로세스가 사전에 마련되어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③ 예술 창작 활동과 단체 운영의 녹색화 지원

① 아카이브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문화예술 녹색화 이행 사례, 연구 자료, 프레임워크,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 현장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
 - 예술 현장에서 실제 녹색화를 이행했거나 그 과정에 있는 국내외 사례와 현장의 녹색화 현황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적용 방법,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이드라인, 문화예술과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와 관련된 여러 지표에 대한 통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기존에 예술현장에서 산발적으로 해 온 정보 탐색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여 상호학습 및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해야 함

- 구축된 아카이브 및 플랫폼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자료 공유 및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
 - 아카이브 혹은 플랫폼이 보다 확산되고 따라서 참여자 수 증가에 따라 플랫폼의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효과를 위해 홍보, 캠페인, 대회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데이터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

- (가칭) <Green Art Portal> 개발·운영
 - (개념) 문화예술 조직운영 및 활동에서의 녹색화(Greening)에 대한 예술현장의 관심과 참여는 높으나 ‘어떻게’에 대한 정보와 사례가 취합·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추진방안) 문화예술부문의 기후위기 적응 방법, 정책, 사례 및 정보가 종합적으로 취합·공유될 수 있는 포털 운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웹진포털 연계

② 문화·예술 분야 탄소발자국 지표와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 분야 탄소발자국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외 더불어 문화서비스 이용 측면까지 포괄해야 함
 - 포괄적인 생태영향 평가를 위한 지표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예술가의 창작 활동의 녹색화 지원을 위해서는 작품을 창작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부터 작품의 참여자가 작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포함하여 작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산출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사례) 시각 예술 분야의 탄소를 제거하고 낭비 없는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민간단체 GCC(Gallery Climate Coalition)은 갤러리를 위한 탄소계산기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이동, 작품 등의 운송, 에너지 등을 포괄

- 문화·예술 분야에서 작업 과정의 녹색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탄소발자국을 집계하는 것에서 나아가 탄소발자국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공공 혹은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필요
 - (사례) 영국의 비영리단체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는 영국예술위원회의 파트너기관으로 2006년 설립된 이래 '창의적인 기후행동'을 기치로 문화예술계의 생태위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와 연구 자료를 나누고 문화예술부문의 환경리더를 양성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 오

[참고] 문화예술부문 녹색화(Green Art)를 위한 기반 사례

탄소발자국 측정 툴(스코틀랜드)
Carbon Management Planning tool

극장(공연) 지속가능 안내서(영국)
『THE THEATRE GREEN BOOK』

Julie's Bicycle (영국)
RESOURCE HUB

③ 예술현장 녹색화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기술과 수급 측면에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친환경적 재화는 관행적 재화에 비해 가격이 높게 조성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 재화 구매에 따르는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 해소가 필요
- 문화·예술 분야의 녹색화를 통한 자원 절감 등을 통해 에너지 및 물질 효율성 제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녹색화를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재료 등의 부문에 대해 녹색화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시장 지원 역시 중장기적으로 요구됨
- 공공부문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녹색 공공조달, 공공기관의 탄소저감 행동과 공공인프라 녹색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문화·예술 현장 녹색화에 필요한 문화적, 산업적, 경제적, 기술적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④ 예술현장 녹색화와 지원사업 구조 연계

-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화를 시도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도입
- 녹색화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시 작품의 녹색화 정도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역시 함께 지원
- 비용과 재료 조달 방식의 불확실성 등 예술 현장 녹색화의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 구조 마련

⑤ 예술현장 녹색화에 대한 공론화 및 예술계 내외의 네트워킹과 워크숍 지원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비전과 필요성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논의가 필요
 - 예술현장 녹색화를 규제 혹은 강제, 일방적 설득이 아닌 그 이유와 의의, 목적에 대해 공감대와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함
 - 예술 현장의 녹색화는 현장의 필요와 맥락을 심분 반영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당사자와 행정의 함께하는 공론화 필요
 - 정책 형성에 있어서도 예술계 공공, 민간과 더불어 기후위기 관련 비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야 함
 - 설정된 정책 방향과 추진 필요성 및 계획은 예술 현장에 장기적이고 명확한 시그널로서 전달되어야 함

- 예술현장의 녹색화 시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워크숍 운영 지원
 - 자치규약 수립, 워크숍 등 예술 현장에서 녹색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가 기존 함에 따라 자생적 녹색화를 위해 워크숍 운영 비용과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현장 예술가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임과 연결, 토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
 - 기후위기는 위기에 있어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약자와 소수자, 위기에 가장 크고 위협하게 노출된 최전선 공동체와 기후위기에 민감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의 연결과 연대, 만남이 중요하므로 예술계 내외의 연결을 위한 정보공유, 지원 역시 필요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위기 문화적 적응과 이니셔티브 형성

❶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기회 및 역량 향상

- 기후위기 의제에서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담론을 개발·확산함으로써 관련 정책 개발의 토대 마련
 - 지구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기후위기 및 그린뉴딜 의제에서 문화예술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부재
 -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환경적 관점을 넘어 기후위기 의제에서 문화예술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담론을 개발함으로써 기후(환경)+예술 접목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현장, 관련 전문가가 협력적으로 담론을 개발·공유·확산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관련 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확산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도출
 - 문화예술계 내에서 기후-예술 관련 담론을 발전시키고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회 및 자발적 활동을 지원

-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기회와 계기를 마련, 문화예술계가 기후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
 -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적 접근은 기후위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기후위기의 적응 방법을 찾아가는 플랫폼 전략으로 구체화 :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은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예술적 방법(비엔날레, 축제, 예술작품 및 활동 등)이 중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의 탄소중립, 문화예술 생태교육에 제한된 기후위기-예술의 담론과 역할을 확장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의 기회와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후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업개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동안의 사회참여 전략의 한계(사실과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었던 커뮤니케이션 및 일방향적 캠페인)를 극복하고 환경+예술 접목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도출

-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개발을 통해 문화예술계가 기후관련 문제를 포착, 문화예술의 역할을 탐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

[참고] 문화예술 접근을 통한 기후대응 실천 사례 : EU "New European Bauhaus"

● 문화예술의 확장과 통합적 접근을 통한 기후대응 실천 : 초국가적 문화예술 이니셔티브

EU Green Deal과 연계한 문화운동 프로젝트 "New European Bauhaus(NEB)"

"차세대 EU가 유럽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고 EU를 순환경제의 리더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환경이나 경제 프로젝트가 아닌, 유럽을 위한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2021.01.18)

- 개요
 - 유럽 Green Deal의 문화적 차원으로, 모든 유럽인들이 아름답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협업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공동 창작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찾는 새로운 접근방식
- 목표 및 의도
 -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접근성 개선이 아닌, 역량 강화와 능력을 설계
 - 단순한 수리가 아닌 순환의 과정을 채택, 치유·변영·재생을 추구
 -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살고 싶은 세상으로의 공정한 전환 추구
- 추진방안
 - 1단계: NEB 컨셉 및 사례 모음(~21.8)
 - 2단계: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21.9~)
 - 3단계: 아이디어와 실천 확대(23.1~)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 현장의 탄소중립 기반 조성

- 국제적·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Net Zero)이 문화예술부문에 적용될 것을 준비·실천하기 위해, 문화예술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문화예술지원기관 국제연합체(IFACCA)는 공공부문이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의무와 역할을 제시
 - 문화예술부문의 탄소중립 방법에 대한 정보, 도움 받을 매개기관 등이 부재한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부문의 탄소중립 기반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 조성 과 함께 '왜'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술현장의 이해와 동의,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모두 필요
 -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진 필요성과 방향(계획)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그널을 제시, 문화예술계 Net Zero 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 기후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계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화. 기반마련의 세부 내용에 따라 파트너를 발굴하고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 문화예술부문의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측정도구, 환경영향계획 수립, 적용 가능한 정보 및 비용 등이 수반되기에 이를 단시간에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탄소배출 저감에 관심과 의향이 있는 자발적 시도를 지원하고(단기), 향후 예술계 탄소배출 저감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반을 조성(중장기)
 - (단기) 예술활동 및 단체운영에서 탄소저감을 도입해볼 수 있도록 정보 취합·제공 (탄소저감 실천 안내서) 창·제작의 세부단계에서 유통·향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장르별·활동별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안내서) 개발·공유 (실시간 관련 정보의 취합·공유) 예술활동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방법, 기후-예술 관련 정책 및 사례 등이 종합적·실시간으로 취합·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예시: 포털) 운영
 - (중장기) 문화예술계의 체계적 탄소저감 도입 및 수용성 향상 (예술분야에 적용 가능한 탄소측정 툴)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계획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탄소배출 측정툴 및 사용매뉴얼 개발·보급 (탄소저감 컨설팅 및 재정부담 완화) 문화예술계의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체별·활동별 환경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컨설팅, 탄소저감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부담 완화방안 추진
 - (재료·용품의 재활용을 위한 플랫폼) 공론화 및 예술인 인터뷰 과정에서 처리와 보관이 어려운 공연용품(무대장치, 소품, 의상 등)을 공유·재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공간 인프라 및 앱 개발 등은 사업의 범위와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예술현장의 기후위기 인식 및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 제공
 -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반 구축) 문화예술 기관은 문화예술 단체가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 문화예술영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증진 및 관련 환경지식·정보 제공, 문화부문의 환경적 영향을 측정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계획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기반 구축, 문화예술 단체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단체운영 및 사업(활동)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 (파트너십 구축) 문화예술 부처 및 기관은 위와 같은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 :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자원개발 및 추진을 매개하는 파트너 발굴·협력, 관련 기관 및 부처 간 협력을 장려하는 파트너십 구축

③ 예술지원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과 리더십 실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칭)<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조직과 시설) 운영 전반, 지원사업 구조 전환 등을 기후위기(탄소중립), 지속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비전, 핵심의제, 실행계획 등 수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하여 공공영역의 문화예술 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은 문화예술 영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입·추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기관 운영에서의 계획수립과 성과보고 의무화 필요
- 본 정책 제안서의 주요 내용 및 (가칭)<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구조의 전환 추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기후위기(탄소중립), 생태문화예술, 지속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가칭)문화예술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위원회